나주교육지원청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 지향

학생이 중심이다

▲ 영어몰입캠프

▲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 진로콘서트

오인성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년 고도의 역사와 빛가람 혁신도시의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나주인 육성'을 비전으로 '살아 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개 역점과제, 1개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고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의 꿈과 비전 정립을 돕기 위해 초·중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 진로콘서트'를 두 번째 개최하고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습심리검사를 실시해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중·고생 멘토링 연구 동아리, 학습코칭, 학습동기강화캠프 등을 운영한 결과 기초학습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교원들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원격직무연수, 토론수업 직무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해 800여 명의 교원들이 미래핵심역량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29교를 대상으로 46회 85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13회(1,640명), 학부모 독서동아리 18회(360명)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2015.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에는 체계적인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상담 역량 강화 및 학교상담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 2016. 전남교육청 Wee센터 평가에서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리더십 신장을 위한 기본·심화·융합 교육과정과 학생 진로 성향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원도심·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영재교육 수혜 대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6. 전남교육청 영재교육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 구현을 위해 ▲몰입학습을 통한 꿈 가꾸기 교육 ▲체험·토론 학습을 통한 지식의 관계성 파악 ▲소외된 학생이 없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등 네 가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2016년도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몰입학습을 통한 꿈 가꾸기 교육이다.

'꿈 날개' 달기 프로젝트를 계획해 나주교육진흥재단과 7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 진로콘서트를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해 학생 2,500여 명과 학부모 등이 참여했고, '꿈 빛깔' 브랜드 갖기 일환으로 1인 2재능 갖기 교육과 '꿈 키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했다.

특히 중·고생 멘토링 연구 동아리는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나주고 10명, 전남미용고 4명, 전남외국어고 10명, 전남과학고 22명, 금성고 12명, 영산고 4명 등 멘토 고등학생 61명이 취약계층 멘티 중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월 2~4회 학습능력 및 기초학력 신장을 돕고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나주Wee센터 자문기관 협의회

2015.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
2016. 전남교육청 Wee센터 평가·영재교육원 평가 1위 기관 선정

두 번째 체험·토론 학습을 통한 지식의 관계성 파악이다.

지식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여러 교과목을 융합한 주제통합형 체험활동을 학기당 1회 이상 운영토록 장학했고, '토론수업 달인' 프로젝트와 교원 7명과 학생 37명이 참여한 사제동행 독서·토론캠프를 운영해 조율과 합의를 통한 융합형 토론능력 향상에 힘썼다.

세 번째 소외된 학생이 없는 행복한 학교 운영이다.

나주에는 경제적 지원이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 학력 또는 가정 환경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36.13%(2,665명)이다. 이들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과 소외 학생간 결연 맺기, 월 1회 이상 '행복 나눔 편지쓰기',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과 교육복지 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해 Wee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정, 건강, 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통합형 사례관리 사업이 복지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영어 몰입캠프,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학교별 맞춤형으로 추진했다.

특히 원도심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학생유출을 방지하고자 면지역 학교로의 일방적 전입학만을 허용하는 거리제한 없는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하고 창의·인성 체험캠프 등 8개 프로그램에 1,248명이 참여하는 원도심학교 초·중 협동학교군을 운영했다.

네 번째 행복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이다.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별로 총 27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중점과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384명의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행복한 교직원 문화를 조성했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자율공동체인 다모임 36팀을 지원했다.

두번째 교육방법 혁신을 위해 교사 자율 무지개 연구동아리 25팀, 새내기 교사 역할 훈련 및 멘토링 연구회 운영과 수업 나누고 수업 키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 교실수업 방법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세번째 교육지원 체제 혁신을 위해 교무행정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향상과 정서지원을 위해 다문화 인턴강사 3명과 학습코디네이터 2명 등 교육과정 운영 보조 인력을 지원했다.

네번째 교육협력관계 혁신을 위해 나주시청, 국립나주박물관, 동신대등 29개 유관기관과 무지개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학부모지원단과 아버지 교실 등 행복한 부모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특히 한글 미 해득으로 자녀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 능력향상 및 학력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도 9명의 학부모가 검정고시에 합격(초졸3, 중졸2, 일부과목4)하는 성과를 냈다.

나주교육의 특색과제는 자긍심을 살리는 나주얼 계승 교육이다.

나주는 천년 고도의 역사와 빛가람 혁신도시의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마한 문화의 중심지 나주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립나주박물관과 '나주와 마한의 역사와 문화체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주교육은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살아있는 교육'은 몰입학습으로 꿈을 키워가는 교육, 체험·토론학습으로 지식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고, '의미 있는 학교'는 소외된 학생이 없는 행복한 학교로 학생 개개인에게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떠한 사유로든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나주교육은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교육행정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되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조각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신·이설되는 유·초·중학교 5개교의 안정적 기반 조성과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교육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결혼이민자 학부모 한국어능력향상 및 학력취득 지원

▲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 중·고생 멘토링 연구 동아리